



사이비 언론 권불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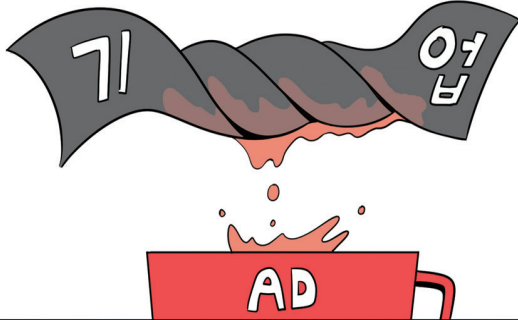
#5 저널리즘의 일탈... 그 끝은?

글 K A A + bigfrog 그림 [작]





구독행태가 변해서
요즘 어렵다더니 기업때리기로
광고비를 타내려고 작정한 것 같아.



우리 말고도 혜성그룹,
PJ건설 회장 사진과 기사가
계속 나오더라고요.



강대리는 일단 포털에
기사가 퍼지지 않도록
협조를 구하고 법무팀과
협의해 언론중재위에
제소할 준비를 해.



어이, 정부장.



포털에 신고한 거
알고 있어요. 한번
해보자는 겁니까?



아니 김국장님!
신문사면 언론답게
보도하고 비판해야지,
무턱대고 경영진 운운
하며 기업을 압박하는
것은 저널리즘을
벗어난 구태가
아닌가요!



내가 우습게
보입니까?



뭐요? 구태? 구악?
이 사람이 안되겠네!
우리 신문이 만만해?
갖고 있는 파일 한번
열어볼까?



막무가내로 나오니
하는 말 아닙니까!
진보신문 수준의
광고나 협찬은
현실적으로
어렵습니다!



됐고! 언제까지
그렇게 나올 건지
두고 봅시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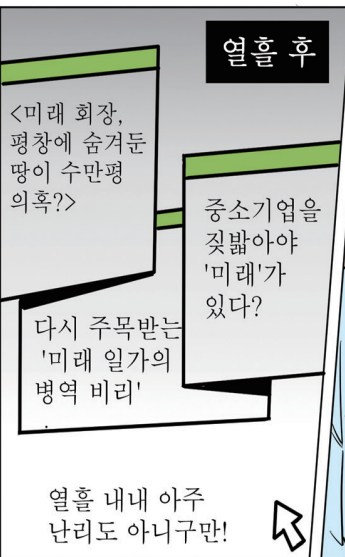
열흘 후

<미래 회장,
평창에 숨겨둔
땅이 수만평
의혹?>

중소기업을
짓밟아야
'미래'가
있다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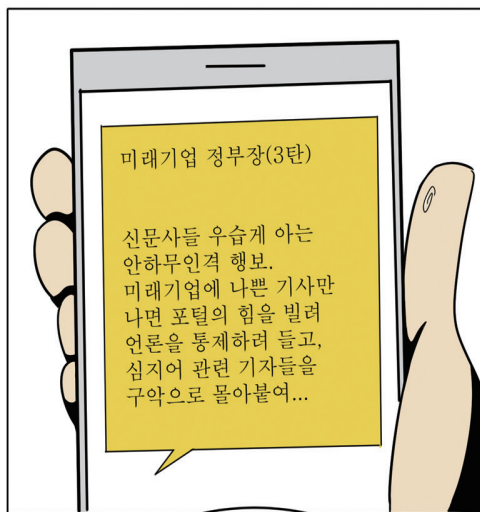
다시 주목받는
'미래 일가의
병역 비리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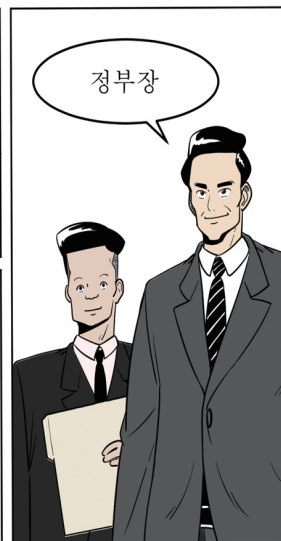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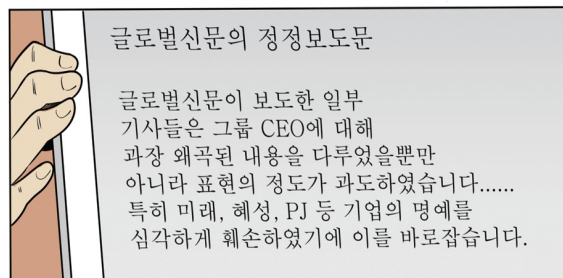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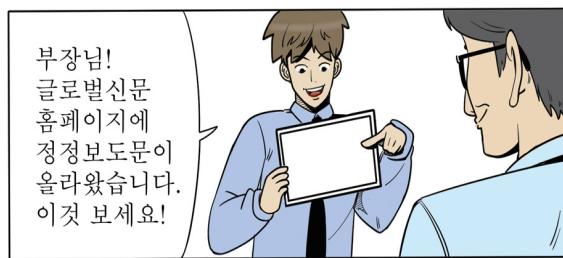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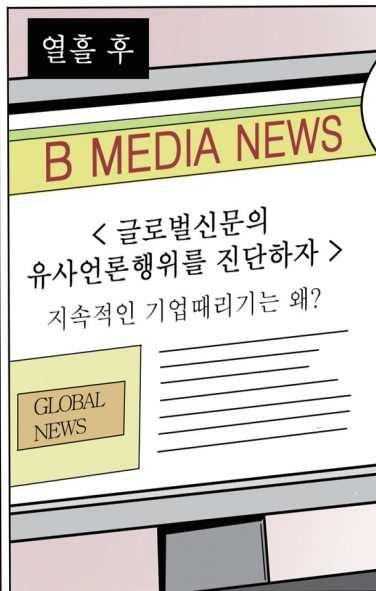
열흘 내내 아주
난리도 아니구만!



기사뿐만
아니라
짜라시도!









*2014년초 <뉴욕타임즈>는 디지털 기반의 뉴스 유통을 전제로 '콘텐츠와 조직 혁신 전략'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'디지털 퍼스트'를 선언함.